

‘성 접대 의혹’ 연루 유력인사 ‘우후죽순’

고위공무원 등 건설업자 별장 방문 파문 확산 민주 “권력형 성상납 게이트” 철저수사 촉구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됐다고 소문이 도는 유력 인사들이 우후죽순 늘어나 그 과정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윤씨가 별장에 주말마다 지인을 초청해 온 만큼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사퇴한 김학의(57) 차관 외에 또 다른 고위 공직자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경찰과 윤씨, 피해여성 A씨의 지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씨의 별장

에는 2008년경부터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주말마다 방문했다.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변호사, 금융업계 관계자, 지방 사업가, 윤씨의 군대 동기 등 다양한 인사들이 다녀갔다. 이들 중 일부는 별장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성 접대 의혹에 연루돼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회 지도층 인사는 김 차관을 포함해 전현직 검찰·경찰·감사원·국가정보원 고위직과 전 국

회의원, 대학병원장, 언론인 등 10여 명이다. 여기에 윤씨와 50대 여성 사업가 A씨,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들로 추정되는 10여명 등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적어도 30명 이상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 접대와 관련없이 단순히 윤씨를 아는 사람이나 윤씨의 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인사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름이 나돌고 있을 가능성도 커 이들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자칫 무더기 명예훼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61)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번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음해”라며 성 접대에 연루됐다면 “할복자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차관도 전남 사

의를 표명하면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됐다는 인사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이 있다면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인사가 더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주변 참고인들을 줄줄이 소환, 광범위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강원도 원주 인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 가본 사람들, 윤씨와

피해 여성인 A씨를 잘 아는 사람들로 현재까지 10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위해 기존 8명인 수사팀을 25일부터 16명으로 배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상납 게이트’로 규정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제나 국회 국정조사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23일 구두논평에서 “경찰 소뇌부, 검찰에 이어 전 사정기관 고위간부까지 연루됐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기강과 도덕운리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지도층 성 접대 장소로 지목된 강원 원주시 부론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별장 모습. 모두 6층의 건물과 정원, 수영장 등이 들어서 있다. 6800㎡(약 2000평)의 대지에 지어진 이 별장은 윤씨의 소유였으나 지난해 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인에 매각됐다. /연합뉴스

농협해킹 최종 경유지는 中 아닌 내부 IP

지난 20일 국내 주요 방송·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일부 악성코드는 중국이 아니라 국내 컴퓨터를 통해 최종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정부 합동대응팀에 따르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유발한 악성코드는 당초 정부 발표와 달리 중국IP가 아닌 농협 내부의 컴퓨터를 거쳐 최종 전파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농협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국 IP(101.106.25.105)가 백신 소프트웨어(SW)배포 관리 서버에 접속, 악성

파일을 생성했음을 확인했다는 방통위의 전달 발표가 하루만에 뒤집어진 것이다.

방통위는 “농협 내부 직원이 중국 IP(101.106.25.105)와 동일한 숫자로 이뤄진 사실IP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응팀이 이 사실IP를 발견하고 중국IP로 오인했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팀에 참여했던 실무자가 농협의 피해 컴퓨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농협의 사실IP를 국제공인 중국IP로 오인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란 얘기가.

‘인터넷진흥원’ 혁신도시 이전 이상기류

방통위관계자 이전취소 발원... 전남도 강력 대응키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시 금천면·이하 빛가람혁신도시) 이전에 이상기류가 형성되면서 전남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금융권 등에서 비롯된 사이버테러와 관련 인터넷진흥원의 이전 재검토를 시사하는 방통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흘러나온 탓이다.

24일 전남도는 “최근 방통통신위원회 일각에서 인터넷진흥원의 나주 이전을 취소하겠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어 정부에 정식으로 문의했고, 상황에 따라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이계철 전 방송통신위원회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주혁신도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가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안전진단, 정보보호기술훈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은 “이계철 전 위원장의 발언은 국토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순수한 가슴을 마비시켰다”며 “즉각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이전 위원장 발원 뿐 아니라, 빛가람혁신도시로 오는 15개 기관 중 인터넷진흥원의 추진 상황이 가장 늦어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이전 인원만 500명으로 한정과 한정KDN,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이어 5번째 규모이지만 현재 부지 매입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어 이전이 늦어지자 정부는 총 이전 비용 590억원 중 460억원을 지원해줄기로 결정했지만 인터넷진흥원은 부족한 130억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전 무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전 위원장의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부지 계약이라도 서둘러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경제부지사에 권오봉씨 내정

전남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권오봉(53·사진)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사무위원이 내정됐다.

전남도 24일 “정부의 조직개편 지연 등과 관련해 다소 늦어졌던 경제부지사 후임에 권오봉 무역위원회 사무위원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밝혔다.

장흥 출신인 권 내정자는 여수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와 미국 미주리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행정고시 26회(1983년)로 공직에 입문한 뒤 옛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과 재정정책국장, 방위사업청 차장 등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무역위원회 사무위원(1급)을 지냈다.

그는 합리적이고 소탈한 성격에 20여 년을 예산과 기획 부서 등에서 일하는 등 재정 분야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평기자 kroh@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아이고...
괴물이 나타났다

1면 '아시아문화전당' 서 계속

싱가포르 역시 지난 1999년부터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Renaissance City Project) 일환으로 국립박물관을 리노베이션하고 넓은 국립도서관을 새로 짓는 등 대대적인 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자리잡은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인 에스플래네이드(Esplanade-Theatres on the bay)도 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였다.

현재 싱가포르 도심 마리아 베이 인근 파당(Padang) 지구에서는 20세기 초 영국 강점기 랜드마크였던 옛 시청사와 바로 옆에 있는 돛 지붕

의 대법원을 연결하는 내셔널 아트 갤러리(National Art Gallery·연면적 4만8000㎡)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도 오는 2015년 옛 전남도청 자리에 건립되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개관을 필두로 2023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를 펼친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아시아 문화전당은 12만8621㎡(3만8908평)부지에 문화창조원·예술극장·문화정보원·민주평화교류원·어린이문화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착공 초기 랜드마크 논란, 옛 도청 별관 철거 논란 등 우려곡절을 거친 문화전당의 현재 공진률은 50%이다. 어린이 문화원을 제외한 건물의 뼈

다 만들어진 상태로, 내·외부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화전당 역시 규모면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뒤지지 않는다. 부지면적 12만8621㎡(3만8908평), 연면적 17만8199㎡(5만3905평)으로 연면적은 국내 최대인 국립중앙박물관(13만7289.66㎡)보다 넓다.

홍콩과 싱가포르, 광주의 대대적인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만큼 성과 여부에 따라 어떤 도시에게는 장밋빛 미래가, 어떤 도시에는 엄청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아시아 문화도시를 표방한 '홍·상·광 문화대전'의 성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은 '예향' 4월호에서 만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 박선정 사무처장 사표 수리

노성대 대표이사 사표는 반려

광주시는 24일, 부작질한 직원채용을 비롯해 최근 광주문화재단 내부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박선정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사무처장이 재단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해주셨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부적절한 직원 채용에 대해 문책하도록 통보가 있었고, 당사자가 문화재단의 장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입장에서 사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사표를 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그러나, 함께 사표를 제출한 노성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오는 11월 말까지 임기가 남아 있으며, 조직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사무처장과 노 대표이사는 광주문화재단이 부적절한 직원 채용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엔 특정인사의 전횡을 지적한 내부문건 유출로 곤욕을 치르는 등 논란에 휩싸이자 이에 책임을 지고 동반 사표를 제출했다.

경력사원 모집 공고

㈜서진종합건설에서 건전한 판단과 진취적인 사고를 추구하며 더불어 같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모집분야	인원
신입 및 경력사원	건축직	0명
	토목직	0명
	조경직	0명

◆ 근무형태
- 현장 및 분사 순환근무

◆ 지원자격
- 해당 기사 자격증 필수
- 5년 이상 경력자 우대
- 공사, 공무 유경험자 우대

◆ 지원절차 및 주의사항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snsvision@hanmail.net 로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 이력서에 사용되는 사진은 규격에 맞게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컬러 사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사차원의 기본 에티켓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이력서내에 연락처 기재 필수)
- 지원부서 기재

◆ 기타
- 접수방법 : e-mail (snsvision@hanmail.net)
- 채용문의 : 062) 384-8940
- 본사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06-4번지 일로빌딩 5층

새롭게 회사를 이끌어갈 가족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 드립니다.

(주)서진종합건설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 · 국산 · 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 금호아파트
- 이마트
- 서방사거리 육교정류소
- 4.19정류소
- 산정인구계림초등학교
- 호남직업전문학교
- 플러스
- 광주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

서울에서 난리가 난 대박사업!
저렴한 가맹비 및 창업비!
2-3평 소형으로도 창업가능!
조리가 필요없는 단순진열판매!

1호점 슈니팡 총장리점 (광주우체국앞)
3월 22일(금) 14시

- 2호점 메가박스 광주점 — 4월 5일(금) 14시
- 3호점 전남대점 — 4월 19일
- 4호점 전남 순천점 — 4월 20일
- 5호점 전남 함평점 — 4월 26일
- 6호점 광주 상무점 — 5월 3일
- 7호점 광주 수원점 —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주)슈니팡코리아
광주 · 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50년 전통 **대한의원**

북경당 안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과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관남로, 대현생명, 구.한미쇼핑, 현재주소, 비로 옆으로 이전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62-2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원별 의원광고심의비용 제78110-금-26690